

이단교리분석 · 반증3

정윤기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대전양우리교회 담임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해석(3)

이단 신천지는 오늘날의 정통교회를 자신들의 추수 밭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통교회 교인들을 추수(전도)해서 오늘날의 시온신인 신천지로 데려와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추수 활동하는 신천지 성도들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추수꾼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통교회 교인들을 미혹하여 복음방 등을 거쳐 신천지신학원에 가서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한다.

근거로 해서 신천지 추수꾼들은 정통교회에 침투하여 정통교인들을 신천지로 포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수꾼 전도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들은 양심에 별 거죽없이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고 있다(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해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반증해 보자.

먼저 렘31:27의 "씨"가 과연 그들의 말대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 렘31:27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이스라엘 기분과 유다 기분을 사립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다시 번영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여기서의 씨가 그들이 말하듯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고 말 그대로 사람의 씨(자녀)이고 집승의 씨(씨)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씨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은 지난 호에 밝혔듯이 그들은 비유가 암호로 기록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씨=말씀'이라는 공식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유풀이 성경 해석은 높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사물이 붉게 보이듯이 성경을 보는 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13:24-30의 '가리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밭의 가리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밭은 세상이요'(마13:38)라고 말씀하셨다. 밭이 세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밭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밭은 의미로 볼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오늘날 정통교회 교인들을 전도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이 가리지 비유에서 말하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본 가리지의 비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의해서 뿌려진 복음에 의해서 곡식(알곡)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가리지가 된 자들이 사단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가리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리지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로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후 할로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라"(갈1:6-8) (다음 호에 계속)

인체와 술에 대한 이야기 23

강봉구 목사 // 바른음주문화증진협의회 · 세계기독교금주운동부흥사회 대표회장



17강 알코올과 저혈당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오려도 내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작물들이 영글지 않아 농사를 망칠까 봐 많은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한 주간 정도 계속되던 태양 빛으로 인하여 한기를 놓는 듯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섭리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아무런 염려와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정욕

의 작용으로 무독(無毒) 처리된다. 이렇게 간장에서 알코올을 무독 처리하는 데는 정상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알코올을 분해(分解) 대사(代謝)하는 동안에는 포도당의 원료가 되는 글리코겐을 비롯하여 기타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 또는 분해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고 음주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담의 보충도 불가능

술은 이 사회의 각계각층에 다 파고들어 우리의 문화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인 삶의 여정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불행으로 인도한다. 오늘날 저혈당에 관한 연관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탄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가장 주된 에너지원으로 신체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분과 설탕 등 탄수화물은 섭취되면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장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다. 신체가 필요할 때에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하여 혈액을 통하여 방출된다. 이것이 혈당(血糖)이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를 뿐 아니라 힘이 나는 것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저장되고 혈액에 포도당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식사를 못하는 환자에게 의사들은 링거 주사를 놓는다. 이 링거 주사가 바로 포도당으로 식사를 못하는 중환자에게 주사하면 식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둬 혈당 상태를 막아준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당분도 혈액에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신체에 이점이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항상 70~115를 유지한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으면 저혈당이 된다. 당뇨병자가 결식(缺食)을 하여 혈당이 내려가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혈당증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며, 탈진 상태에 이르고, 더욱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진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저혈당 증상이 당뇨병자에게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사람에게도 쉽게 온다. 술을 마셨다고 곧 저혈당이 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 5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저혈당이 온다. 통계를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3배 가량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높다. 왜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올까? 이미 알코올을 분해해서 과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간장에서 알코올 탈수소효소,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마이크로산화제 등의 효소

의 작용으로 무독(無毒) 처리된다. 이렇게 간장에서 알코올을 무독 처리하는 데는 정상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알코올을 분해(分解) 대사(代謝)하는 동안에는 포도당의 원료가 되는 글리코겐을 비롯하여 기타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 또는 분해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고 음주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담의 보충도 불가능

다. 그리하여 혈당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심각한 저혈당까지 오게 된다. 저혈당 증상이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당뇨병의 저혈당 쇼크와 같다. 이런 증상이 올 때 신속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뇌세포의 파괴를 일으켜 치매나 항구적인 기억 상실에 걸릴 위험이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의 원료가 글리코겐까지 모두 소진되어 간장에서 더 이상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상수단으로 조직 속의 단백질이나 지방까지 끌어다 당원(糖原)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지닌 가아(飢餓)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의 생성이 모두 정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 혼수가 오게 되고, 언어가 뇌 조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정에서 남편이 전날 밤 과음으로 아침 식사를 거를 때 아내가 타주는 따뜻한 꿀물 한 사발이나 후식탕을 탄 물 한잔이 가정의 저혈당은 물론이거니와 뇌세포 파괴로 인한 기억력 감퇴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것을 용인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신, 알코올로 인한 인체의 반응에 대한 제언일 뿐이다.

‘자녀를 행복하게 부모를 건강하게’



제17회 새가정 중창경연대회 17회 새가정 중창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번 중창대회는 '자녀를 행복하게, 부모를 건강하게'를 주제로 어린이에서부터 청년·장년·노년 그리고 등 다양한 중창팀이 참여하여, 찬양으로 화

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상(1위)에는 예뻐어린이중창단(예뻐교회), 소망상(2위)에는 정동제일교회(아름다운중창단), 사랑상(3위)에 구세군서울제일교회(협사바중창단)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은유상 복원교회(마리아중창단), 화평상 구세군영원교회(하늘소망중창단), 기쁨상 희년의집중창단, 화평상 구세군영원교회(하늘소망중창단)가 수상했다. 경연대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신재국 사관(한국기독교기생협회 부회장, 구세군서울제일교회)의 사회, 최월숙 권사(새가정운영위원장, 농성교회)의 기도, 김광년 목사(새가정연구위원, 농성교회)의 설교, 남기탁 목사(한국기독교기생협회 회장, 복원교회)의 축도로 드려졌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류형선 작곡가(음반프로듀서)와 김미성 교수(미시건주립대 박사, 강동 원주대 외 출강)가 수고했으며, (은누리 시니어중창단)이 특송, (구세군서울제일교회 브라스악대), 성전교회(생명생중창단)이 찬조출연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익산시 구국기도회' (Ikseon City National Prayer Meeting) featuring Pastor Kim Seung-gwang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hurches and dates.

일시: 2011년 11월6일(주)저녁 7시15분 ▶ 장소: 익산남중교회(담임목사 강명석,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165번지) ▶ Tel.063-858-3451 ▶ 주최: 강남금식기도원-강남교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1-1) ▶ Tel. 02-556-1411 ※ CTS기독교TV 매주일밤 10시 김성광 목사 구국설교 / ※ 구국 설교는 "김성광닷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